

제4회 중·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교	성명	한글	안나 비군	생년월일	1996년 9월 24일
영문	영문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영문	영문	Anna Bigun	학년	5학년

100
 200
 300
 400
 500

한겨레하는 사랑
 해방이 비회는 것. 마음껏 크게 웃는다
 것. 소소한 이야기로 하면 사랑할 수
 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마다 다
 내 새가 에는 사랑이 사랑은 혼자가 사
 는 것은 너무 어려워진 것이라. 왜냐하면
 자감들이 행복을 사랑하고 위해서는 차
 게 감정을 반대시 나는는 표모가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남에도, 슬픔은 애도
 우리 는 모두 다 겪어왔을 원하느
 사랑이 한명이라도 믿어주는 것
 다
 나에게 "한겨레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의미있게 아주 좋다. 내가 내 생각인 사랑
 이라고 생각했음 때부터 친구를 사귀는
 것은 너무 어렵고 성격이 밝은 아이들
 은 보통 때마라 "나도 다들 사랑들과
 함께 국민이었어! 대화를 나누는 수 있었
 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 다
 존 아이들의 나에게 먼저 이야기할 해
 도 나쁜 왜지 다른 사람들 나와 진
 해지고 싶어할 리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상대방의

제4회
야.농.산
권영성
김기환
배이찬

[illegible][illegible]

제4회 중·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무소크비국외국어대학	한글	안나 비군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영문	영문	영문		학년			

가만 사람틀이 많았는데 모두 다 시지
 미를 데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
 았라 그런데 어쩔 수 없네 방친구가
 나타나 소리를 크게 연서 깨를 방
 향해 가까이 왔었다. 개가 내 방친구의 모
 습을 무시위해서 내 바지를 낭구 도망
 갔다. 내 방친구는 내 소리를 잡고 이런
 만을 했다. "훈자서 사눈 것은 볼가능
 해! 모든 사람틀이 도음이 필요함 시기
 가 있어 그래서 훈자서 다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친해지자!". 나는 이런
 감동적인 말을 들은 순간에 눈물이 샀
 다. 나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고 내가 평생 친구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방친구의 말
 어분에 나는 변화할 수 있어서 지금도
 고마움을 느낀다. 이 사건 방생한 다음
 날에 이 방친구가 다룬 친구들과 친해
 지기 도와줘서 우리는 다 같이 대화
 를 나누어서 점점 서로를 알게 됐고 며
 칠간에 모든 방친구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는 다 서로를 응원했고
 우리 중에 한명이라도 힘을 얻어 있
 을 때 그 친구를 무시하지 않았고 도
 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많

제4회 중·동유럽 성교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교	성명	한글	안나 비군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문			영문	Anna Biquin	학년			

이 지나도 나는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
을 한다. 그 친구들 덕분에 아무도
자세 있게는 것이 아니라 깨닫아서 그
친구들은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구들인 것 같다. 내가 이제 성인이 되
서 이 경험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
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도와 주고 싶
게 진해졌 수 있다. 그래서 삶을 함께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

200

300

400

500